

## 2025년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총평

- 심사분과 : 2025년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 회의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14:00~17: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소영, 김현환, 우현희, 이의신, 정철

예술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매개하여 동반성장의 토양을 일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선정 심사에는 지역별로 총 28개 사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개 사업은 지원 자격 미달 및 신청 철회하여 최종 심사대상 26개 사업(후원결연 228건), 지원신청액 3,892백만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6개 신청사업(후원결연 227건)에 대해 3,359.3백만원이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단과 기업 및 기관이 해당 예술가(단체)들과의 매개, 결연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각 지역문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던 기업과 예술의 결연 활동을 확장하여 지역으로까지 고르게 문화예술 후원의 사회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제출한 신청서와 붙임자료 등을 사전 면밀히 살펴보고, 심사 당일 사업에 대한 취지와 주요 심사 관점에 대해 우선 논의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예술후원의 매개 상황, 재단의 적극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셨습니다. 지역 현장의 다양성이 체화된 본 사업의 지향이 실현될 수 있겠다는 각오로, 사업에 산이 모든 신청 사업에 객관적이고 형평하게 투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재단의 사업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기에, 본 사업의 매칭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신청서도 일부 발견되었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로 신청서 기재와 완성에 어려웠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의 주요기준은 ①결연(후원)과정에서 예술가(단체)의 참가자격 연부(然否), 기업후원금 및 지역문화재단의 교부금 지원 연부(然否), 후원기업의 자격기준, 후원약정기간의 적정 연부(然否) ②첨부된 증빙자료의 객관적 충족 연부

(然否), 결연기업과 예술단체(예술가)의 일치 여부(然否), ③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여부(然否)로 정하였습니다. 이 외 결과적으로 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 후원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①지역대표예술가(단체)와 기업 간 후원 결연에 대한 문화예술후원문화 정립을 위한 적확(的確)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지역별 편향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조율하며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에 대한 신청 자료가 다소 결여되더라도 조건을 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①현물성 후원인 장비 임차, 임대 지원 등 표준 기준단가와 공시지가 자료의 합당성에 대한 보완이 요청되는 경우, 지원금의 조정 또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며, ②지역의무지원금의 충족 요건에 대해 중앙부처 주관의 지원사업 참여도 발견되었으나, 지역 특성상 필요한 사정으로 해당 지역의 노력을 인정하여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과 공공 및 민간 결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지원'이라는데 비전이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 지역에서 중앙정부 주관의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과 매칭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토록 안내, 별도 공모를 시행해 주시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지향적 차원에서 당부드릴 점을 찾아본다면, 각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이 내재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후원이 아쉽게도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재단 및 기업, 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예술가(단체)들과 보다 근접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가 가속되어 실제 예술과 후원 동력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반증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업·재단과 예술가(단체)가 어떻게 결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예술과 동반 성장한 하나의 문화적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심사위원 일동